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79호 HYUNBULNEWS.COM 2026년 5월 20일(음력 4월 4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5월 16일 열린 불기 2570년 연등회에서 서울 흥인지문에서 종로 일대를 지나 조계사까지 10만 연등행렬이 펼쳐졌다. 행렬의 선두에서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대표 스님들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 봉행위원단 곁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석자' '가비' '모희' '니사'등이 장삼을 갖춰 입고 함께 걸었다. 사진=특별취재팀

'로봇 스님' 이끈 10만 연등…AI시대 견인하다

봉축위, 5월 16~17일 '연등회'
5만여 명 10만 연등 들고 행진
자율주행 로봇 · AI 로봇에 눈길
50만명 참여…외국인들 "원더풀"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10만 연등이 서울의 밤하늘을 찬란하게 수놓았다. 특히 올해 연등행렬에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 로봇, AI 로봇까지 함께 행진에 나서며 전통과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연등회의 모습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는 5월 16일 서울 흥인지문에서 종로 일대를 지나 조계사까지 대규모 연등행렬을 펼쳤다.

대형 장엄등과 5만여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형형색색의 행렬등이 도심을 가득 메웠고, 거리 곳곳을 채운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환호와 박수로 행렬을 반겼다. 이날 연등행렬 전체 참여 및 관람 인원은 50여 만명으로 추산돼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올해 연등행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단연 로봇이었다. 봉축위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대표 스님들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 봉행위원단 곁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석자', '가비', '모희', '니사'가 장삼을 갖춰 입고 합장한 채 함께 걸었다. 주변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2대가 봉행위원단을 호위하듯 이동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북향민들이 치자등·마늘등·화분등·육모등·거북등·물고기등 등 북한 전통등을 들고 행진해 남북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주목을 받았다.

동국대도 AI 로봇으로 연등행렬에 색다른 풍경을 더했다. 임중연 동국대 교수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AI 로봇 '혜안 스님'과 동국대 예술대학 불교동아리 '진선미'의 전법특임교수 은산 스님의 보조법사로 활동 중인 AI 로봇 '선아 법사'가 대열에 합류해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선두 행렬 뒤를 이은 5등단에서는 동국대가 지난해에 이어 3000명이 넘는 대학생 불자들과 함께 참여해 청년 불교의 활기를 보여줬다. 개교 120주년을 맞아 학교 상징인 흰 코끼리 '백상'과 '아코' 대형 장엄등도 새롭게 단장해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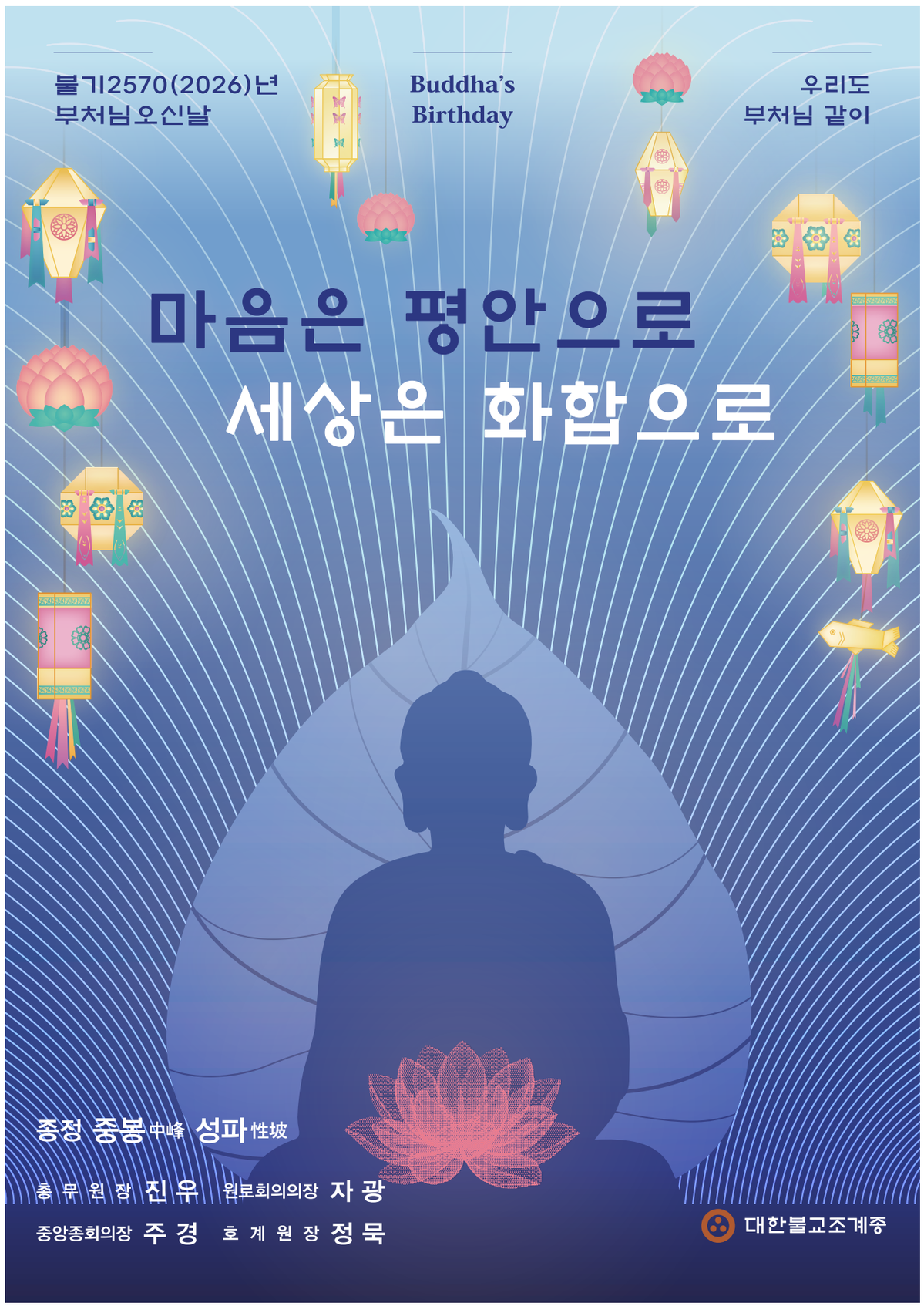
이어 조계사와 봉은사, 도선사, 화계사, 진각종 등 각 사찰과 불교단체들도 저마다 특색 있는 장엄등과 행렬등으로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한마음선원은 금강저를 형상화한 행렬등으로 이 시대의 무지와 장애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세계 각국의 불자들도 연등행렬에 함께했다. 베트남 원오사와 대만 불광산사, 방글라데시 붓다사, 스리랑카 마하보디사 등에서 참여한 이주민 불자들은 각 나라의 전통등을 들어 불교문화의 다양성을 전했다.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체부는 종교 주무부처로서 연등회와 같은 소중한 전통문화가 우리 사회 치유와 화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봉축 메시지를 발표했다.

연등회를 찾은 시민들도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외국인들은 연신 "원더풀"을 외치며 연등 물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가족과 함께 참여한 신서현(40·서울) 씨는 "매년 연등회를 찾는데 올해는 로봇이 함께 걸어 신기하고 볼거리가 더 풍성했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 파비앙(32) 씨는 "아름다운 봄밤의 서울을 만난 기분"이라며 "프랑스에 돌아가도 한국을 생각하면 웃음 짓게 될 장면들"이라고 감동을 전했다.



2026년 봉축특집호
A·B·C 섹션 88면 발행

데스크 초대석
조계종 원로의원 원산 스님 B21



봉축특집
손절사회, 자비로 잇다
B1·2·3·6·7·10·11



불교, AI를 품다 C1·2·3·5



봉축법어·봉축사
A7·8·11·12·13·17
봉축화보 C12·13
사찰음식 무형유산 지정 1주년 특집
지정 1주년 의미와 과제 B16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 제언
B17